


| | | |
|---|------|--|
| 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 | 보고서명 | WGBI 편입 이후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향 |
| | 문의 |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850, hjkang326@kcmi.re.kr)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822, bjang@kcmi.re.kr) |

- WGBI 편입으로 대규모 자본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, 편입 극대화를 위해 편입 이후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선제적 관리 필요
 - 약 500~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되며, 국채금리 하락, 환율하락, 안정적 국채 수요 기반 형성, 시장 참여자 다변화 등의 효과 기대
 - 다만, 인덱스 자금의 기계적 유출입 특성과 환노출(unhedged) 투자 비중 확대는 지위 변화와 외환시장 변동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리스크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

- (지위 변화 리스크) 시장 접근성 악화로 인한 적격성 하향 조정과 지수 내 비중 조정 발생 가능성 존재
 - 지수 내 비중 조정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 자금 이동을 유발하여 단기간 내 자금 유출 리스크로 작용
 - 미국, 유럽 등 주요국의 국채 발행 확대, 인도 등 신흥국의 신규 편입 가능성 등은 비중 하향 요인으로 잠재
 - 중국 제외 지수(WGBI ex. China)를 추종하던 인덱스 투자자금이 향후 중국 포함 지수(WGBI)로 벤치마크를 전환할 경우, 한국 국채 투자자금(최대 약 10%)이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

- (외환시장 리스크) 투자자금의 구조적 변화로 외국인 자금 유입의 환율에 대한 영향 확대
 - WGBI 편입 결정 이후 외국인 채권자금은 차익거래 중심에서 환노출 자금 중심으로 변화

-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 매수와 환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확대
 - 스왑시장에서는 투자자 구성 변화로 반응 경로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과도기적 특성 관측

- (시사점)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지위 변화 리스크와 외환시장 리스크가 상호 강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
 -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현물환 거래 확대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개선되고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
 - 이에 따라 최근과 같은 국면에서는 환율 안정에 기여
 - 반면, 지수 내 지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국채 매도가 원화 매도로 직결되어 지위 변화 리스크와 외환시장 리스크가 상호 증폭될 가능성

- (정책 방향)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지속, 모니터링 강화, 외환 및 국채시장을 연계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
 - 시장 접근성 및 제도적 일관성 유지,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지속 추진
 -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외국인 자금 유형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 강화
 -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과 국채시장 수급 관리를 연계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